

특별기획

김제시, 새만금 2호방조제에 기초번호판 100개 추가 설치

김제시는 1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얻어 새만금2호방조제(새만금로)에 시비 1,000만원을 들여 기초번호판 100개를 추가 설치했다.

기초번호판이란 건물에 없는 도로주변의 가로등, 한전주 등에 긴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로 기초번호판에 표기된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신고함으로써 사건·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김제시에서는 새만금2호방조제(새만금로) 9.9km에 200m간격마다 양방향으로 100개를 설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수협 전북여성어업인연합회 불우 독거노인 사랑의 김치전달

동지살달 눈보라치는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군경위문초소에 사랑의 김치를 전달, 흐뭇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안 수협 전역전(전북여성어업인연합회)부안군지부 회원 50여 명과 부안 수협임직원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랑의 김치전달을 담아 관내 불우 독거노인 및 군경초소,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부안 수협 격포위판장에서 김치김치를 버무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온정을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외 계층에게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수협부녀회 회원과 부안 수협 임직원들 모두 협동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경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1일 김제시 요촌동 터미널사거리에서 김제시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김제시 학원연합회, 교통·지역경찰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송년회 등 연말연시 분위기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에 대한 사전 홍보로 단속강화에 대한 운전자 수용도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 하하고자 실시 하였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 전단지과 "음주운전 NO"라는 문구가 새겨진 성에 제거기를 배부 하였으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2배 상향(3만 > 6만원)"에 따른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지방인사혁신대상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읍시, 지방인사혁신대상 '우수기관'

공무원 조직에 성과주의 문화 정착 높이 평가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지방인사혁신대상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부서별 개인별로 산출된 BSC 행정성과평가 결과를 성과 상여금 개인별 차등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근무성적 평정에도 반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BSC 행정성과평가 결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면서 공무원 조직에 성과주의 문

화를 정착시켜 시정 운영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정 성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평가 시스템 운영은 감사부서에서, 산출된 자료는 인사부서에서 근평 및 인사자료로 활용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외부 청탁을 근절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사 청렴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평가 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하반기 BSC 행정성과 평가 체계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생기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인사혁신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우 또는 확산시킴으로써 지방 인사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행자부는 전국 243개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혁신사례 중 2차에 걸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 등 11개 자치단체 선정 후 30일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KT&G 전북본부, 정읍시에 성금 전달

KT&G 전북본부(본부장 고경찬)는 1일 정읍지역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상상펀드 1천만원(10,000,000원)을 정읍시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KT&G 전북본부 고경찬 본부장, 공봉환 정읍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의 수혜자는 부인과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36세의 전모씨다. 전씨는 유치가 빠진 후 영구치가 나오게 되면서 구치비를 앓고 있고, 장기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시각과 지체장애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시는 지역 사회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KT&G 정읍지점이 사내 기부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후원이 성사됐다.

KT&G가 실시하고 있는 기부청원제는 임직원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연을 사내 전산망에 올리 고 이를 응원 하는 댓글 수가 200 개 이상일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 된 '상상펀드'를 이용해 기부금을 지원하는 KT&G만의 독창적인 기부문화이다.

고경찬 전북본부장은 "임직원들이 합심해 모은 성금을 어렵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께 전달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나눔의 의미도 다시 한 번 새겼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바른 기업, 함께하는 기업, 깨어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KT&G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보건소,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전개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1일 '제2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김제 전통신장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보건소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에이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콘돔 및 예방법이 실린 리플릿을 배부함으로써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의 동참과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에이즈 증상은 초기에 일반적인 감기증상처럼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는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감염경로는 에이즈 감염인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제제 및 수혈 등에 의해 감염되며, 현재 치료법이 많이 개

발되어 감염인이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아울러 에이즈는 HIV감염인과 악수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등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 대중목욕탕, 화장실 공동사용으로도 감염되지 않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글로벌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펼쳐

다문화여성단체 회원 14명

부안군 다문화여성단체 '글로벌맘' 회원 14명은 지난달 30일 주산면 송산향도마을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결성된 글로벌 맘은 7월 지역축제인 '제8회 님의 뽕 축제' 등에 참여해 다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자조 모임을 통해 봉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활동에 뜻을 모아

송산향도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

글로벌 맘 한 회원은 "200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하느라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내가 만든 김치를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고 보람도 있었다"고 환하게 웃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 나서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 지구대가 관내 집중적으로 걸려오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하려고 금융기관은 물론,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방송 등 홍보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상동 지구대는 최근 피해사례,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등을

수많은 홍보전 단지를 자체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어떤 때에도 전화로 금융정보를 묻는 것은 사기이며, 비슷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끊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당부하며 신고요령도 홍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